

도의회 차기 의장은 누구?

제13대 제주도의의회 7월 1일 개원... 의원 수 45명
민주당 34석-국힘 8석-진보·조국혁신·무소속 각 1석
3선 이상 11명... 전반기 의장단·상임위 인선 관심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인선 등 원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제13대 제주도의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전체 45석 가운데 34석을 확보하며 제1당 지위를 굳힌 만큼 도의장 선출 역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의회의 최다선 의원과 연장자 등을 고려해 의장을 선출해 온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의회는 다선 의원층이 두터워지면서 의장단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

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호형(60·일도2동), 정민구(58·삼도1·2동), 강성의(58·화북동), 양영식(66·연동갑), 강철남(58·연동을), 송장권(61·외도·이호·도두동), 김대진(57·동흥동), 임정은(53·대천·중문·예래동), 송영훈(56·남원읍) 당선인 등 9명이 3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황국(59·용담1·2동) 당선인이 4선, 강충룡(51·송산·효돈·영천동) 당선인이 3선 고지에 올랐다.

양당을 합쳐 3선 이상 의원만 11명에 달하는 만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인선은 원 구성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 내에는 3선 의원 9명에 재선 의원 10명

까지 포진해 있어 주요 보직 배분을 둘러싼 당내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관심사다. 그동안 도의회는 원 구성 과정에서 제2당에도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왔다. 다만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5%를 차지한 만큼 차기 의회에서도 이 같은 관례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오는 24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논의될 상임위원회 개편안도 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임위원회는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제13대 제주도의의회는 다음 달 1일 개원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전반기 원 구성은 개원 직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18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가 오는 19일 개막해 23일까지 5일간 열린다. 행사기간 물찾오름이 한시 개방된다. 한리일보 DB

오는 19-23일 제18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명품 숲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행사 기간 물찾오름 한시 개방... 시험림길 특별 운영

제주도를 대표하는 숲길인 사려니숲길에서 자연과 예술, 힐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숲속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과가 주최하고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사려니숲길 열린무대(붉은오름 입구)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도민과 관광객이 사려니숲길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숲속 음악회, 생태 체험,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채워진다.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을 시작으로

있는 대표 숲길 코스이다.

행사가 진행되는 사려니숲은 산림청이 2023년 국토 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가운데 '산림경영형 숲'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명품숲은 실태조사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를 거쳐 산림경영형(산림경영을 잘한 숲), 산림휴양형(휴양을 즐기기에 좋은 숲), 산림보전형(보존 가치가 높은 숲)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산림경영형 숲'은 50년 이상 된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식재된 숲으로 임도시설 및 숲 가꾸기 등 임업인들의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오름 및 숲길과 연결돼 제주 산림관광의 대표적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올여름 야외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나선다 도, '흔디쉽팡' 확대 운영·이동형 쉼터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야외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삼다수 지원, 이동형 휴식 버스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인 '흔디쉽팡' 확대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항만, 공항, 택배, 통신설비 등 폭염 취약성이 높은 직종의 야외노동자들을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아 제주삼다수(500ml) 2만2400개를 지원한다. 후원된 제주삼다수는 오는 7월 초순 제주향운노조 등 2개 단체를 시작으로 우정노조 제주본부 등 4개 단체, 지상조업사 운영협의회 등 2개 단체를 포함해 총 3일에 걸쳐 8개 단체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과 항만 등 피약별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돌아다니는 버스(이동형 쉼터)'도 운영한다.

버스 내부에는 에어컨과 침대가

설치돼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며, 간호사가 함께 탑승해 간단한 건강검진도 지원하는 등 야외노동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

이와 함께 커피차를 활용한 '돌코롬 다방'도 상시 운영한다. 배달라이더 등 야외노동자의 왕래가 잦은 노형로터리 등 주요 거점에서 냉커피와 생수, 쿨토시 등 폭염 안전용품도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노동자들의 거점 쉼터인 '흔디쉽팡'은 365일 24시간 개방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안에 쉼터 인프라를 추가(성산·표선 등 2개소)로 조성한다. 현재 도내에는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일반인 심폐소생술 매년 증가세... 4면 / “교권보호국 신설? 정치쇼 될리”... 5면

2026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

(주)유한고속관광이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통학버스(등·하교) / 현장학습
수학여행 / 오름친목 / 결혼수송

전세버스 80대 보유

(주)유한고속관광

http://www.yeuhangosog.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77
T.724-9595,0995, F.724-4411